



포브스가 보도한 전 세계 스포츠 스타들의 수입 현황 8위에 오른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 전체 수입의 96%가 직접 광고에 나서거나 기업 로고, 상품명 등을 노출한 대가로 받은 수입인 것으로 드러나 여전히 최고의 상품성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줬다. AP뉴시스

〈연간 기업후원금〉
730억원!

우즈 광고파워, 페더러보다 세다

미국 경제 전문 매체 포브스는 최근 전 세계 스포츠 스타들의 수입 현황을 보도했다. 지난해 6월 1일부터 1년 간 가장 많은 돈을 번 선수는 테니스 스타 로저 페더러(39·스위스)였다. 무려 1억630만 달러(약 1304억 원)에 이른다.

이 중 페더러가 경기 출전 상금으로 벌어들인 금액은 630만 달러. 전체 수입의 약 6% 정도다. 1억 달러가 광고를 비롯한 후원 계약이었다. 페더러는 300만 달러 이상의 대형 계약만 13개로 알려져 있다. 대표적인 기업은 유니클로다. 2018년까지 나이키의 후원을 받았던 페더러는 이후 유니클로와 10년간 3억 달러를 보장하는 계약을 맺었다. 그 밖에도 크레디트 스위스, 메르세데스-벤츠, 톨렉스, 윌슨 등이 페더러의 스폰서다.

2위와 3위는 축구 스타인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5·포르투갈), 리오넬 메시(33·아르헨티나)가 차지했다. 호날두는 1억500만 달러(약 1288억 원), 메시는 1억400만 달러(약 1276억 원)를 번 것으로 나타났다.

눈에 띄는 건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45·미국). 그는 1년 간 6230만 달러(약 766억 원)를 벌여 전체 수입 8위에 올랐다. 이 중 상금은 230만 달러(약 28억 원) 밖에 되지 않았다. 나머지 6000만 달러는 기업에서 받은 후원금. 전체 수입의 96%에 이르는 수입이 직접 광고에 나서거나 기업 로고, 상품명 등을 노출한 대가로 받은 광고 수입이었다. 상금 수입은 전체 스포츠 스타 중 96위에 그쳤지만, '장외 수입'에서는 1억 달러를 챙긴 페더러에 이어 미국프로농구(NBA) 르브론 제임스(미국·34)와 공동 2위에 올랐다. 전체 수입에서 광고로 얻은 비중은 페더러보다 오히려 더 높았다.

2009년 장외수입으로만 1억500만 달러(약 1290억 원)를 벌었던 것에 비하면 전성기에 비해 필드 밖 수입이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골프 황제'는 최고의 상품성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김도현 기자 dohoney@donga.com

“참을만큼 참았다”...스포츠 스타들 격분

(마이클 조던)



인종차별에서 비롯된 '플로이드 사건'에 세계 스포츠계도 격분하고 있다. 도르트문트 제임스 산초(큰 사진)는 1일(한국시간) 파더보른 원정경기에서 골을 터트린 뒤 '조지 플로이드를 위한 정의'라고 적힌 내의를 공개했다. '농구황제' 마이클 조던(왼쪽 작은 사진), 메이저리그 뉴욕 메츠의 스타 피트 알론소 등도 자신의 목소리를 냈다. AP뉴시스

농구황제 마이클 조던 성명 발표
“인종 차별 저항하는 모두를 지지”
도르트문트 산초 ‘정의 세리머니’
메츠 피트 알론소 ‘함께 싸울 것’
백인선수들까지 차별 강한 반대

경찰의 과잉행위로 흑인 남성이 사망하자 미국 전역이 들끓고 있다. 시위와 소요사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 세계 스포츠계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CNN, AP통신 등의 1일(한국시간) 보도에 따르면 조지 플로이드 사건에 항의하는 시위가 미국 내 최소 75개 도시에서 이어지고 있으며, 25개 이상의 도시에선 야간 통행금지령이 내려졌다.

플로이드는 지난달 26일 경찰의 진압 과정에서 숨졌다. 이미 제압된 상황에서도 5분 이상 무릎에 목이 눌렸고, 고통을 호소해도 경찰은 이를 듣지 않았다. 미국 흑인사회는 이를 무자비한 공권력 집행, 그리고 인종차별로 받아들였다.

미 전역으로 시위의 불길이 번지고 있다. 클리블랜드 지역 방송국 WKYC에



따르면, 메이저리그 인디언스의 홈구장인 프로그레시브필드의 상점도 약탈당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스포츠스타들도 플로이드를 추모하며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1일 2019~2020시즌 독일 분데스리가 파더보른 원정경기에서 헤트트릭을 작성하며 팀의 6-1 대승을 이끈 제임스 산초(도르트문트)는 후반 13분 득점 후 상의를 벗는 세리머니를 펼쳤는데, 내의에는 'Justice For George Floyd(조지 플로이드를 위한 정의)'라는 문구가 있었다. 산초는 플로이드 사망 직후에도 소셜미디어(SNS)에 “올은 일에 목소리 내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글을 올린 바 있다.

‘농구황제’ 마이클 조던은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우색 인종에 대한 뿌리 깊은 인종차별, 폭력에 저항하는 모두를 지지한다. 우리는 참을 만큼 참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던은 흑인사회의 상징적 존재다. 미국프로농구(NBA)의 슈퍼스타 르브론 제임스(LA 레이커스)도 SNS에 인종차별 반대글을 게시했다.

미국 메이저리그(ML) 선수들 역시 동참하고 있다. 백인 선수들까지 자신의 진심을 드러내는 중이다. 애덤 웨인라이트(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는 백인들에게 “피부색이 다른 이들에게 다가 사 랑한다고 얘기하라. 그 행동이 이번 사태를 극복하는 데 크게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피트 알론소(뉴욕 메츠)는 “나는 백인이기 때문에 차별이 어떤 느낌인지 알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누군가 차별을 겪는다면 함께 싸우겠다. 언제나 그들의 편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플로이드가 사망한 미네아폴리스가 연고지인 미네소타 트윈스의 로고 볼필리 감독은 “개선해야 할 점이 정말 많다. 플로이드의 이름, 그리고 그가 겪은 일을 기억해야 한다”며 이번 사태를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최혁래 기자 ing17@donga.com

코로나도 막지 못한 '콜 감독의 스킨십'

(여자축구대표팀)

WK리그 감독들 만나 의견 공유
10·11월에만 대표팀 소집 결정

여자축구대표팀 콜린 벨 감독(영국)은 스킨십의 대가다. 지난해 10월 부임 이후 하루도 빠짐없이 한국에 공부에 매진한 이유도 주변과 친밀하게 소통하고 가까워지기 위해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하늘길이 가라막히면서 고국에 다녀올 순 없었지만, 그는 때 아닌 장기 휴가를 알차게 보냈다.

‘생활 속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키면서도 여자실업축구 WK리그 감독들과는 꾸준히 연락했다. 1일에는 이들과 서울 신문로 축구 회관에서 간담회를 했다. 이 자리에서 벨 감독과 WK리그 사령탑들은 “대표팀은 우리 모두의 것”이라는 인식을 공유했고, 여자대표팀의 성공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한국여자축구의 지상과제는 내년 7월로 연기된 2020도쿄올림픽 출전권 획득이다. 물론 좁은 문을 통과해야 한다. 내년 2월 중국과 치를 플레이오프(PO)를 넘어야 한다. 역대전적, 객관적 전력 모두 열세지만 최근 흐름을 보면 사상 첫 올림픽 출전이 불가능하지 않은 않다.

큰 역사를 바라보는 벨 감독으로서 태극낭자들과 최대한 긴 시간을 보내고 싶다. 그러나 WK리그와 상생을 택했다. 올 하반기 3차례 A매치 기간(9·10·11월)을 전부 사용하지 않고, 10·11월에만 대표팀을 소집하기로 결정했다.



여자축구대표팀 콜린 벨 감독이 1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 도중 안경을 고쳐 쓰며 취재진의 질문에 집중하고 있다. 뉴시스

벨 감독은 대표선수 관리에도 많은 정성을 쏟고 있다. 잉글랜드와 스페인 클럽에 몸담고 있는 선수들과는 최근 티타임을 가졌다. “코로나19로 인해 국내에 머물고 있지만 프로답게 생활하고 있다. 선수로서, 또 인간으로서 어려움을 잘 헤쳐가고 있다”고 이들의 근황을 전한 벨 감독은 “그들에게 대표팀 감독이 항상 관심을 갖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싶다”고 밝혔다.

그렇다고 벨 감독의 보폭이 꼭 여자축구에 한정된 것은 아니다. 남자대표팀 파울루 벤투 감독(포르투갈)과도 지난달 말 만났다. 축구를 남녀로 구분하지 않고 함께 발전시키는 의지에서였다. 벨 감독은 “코로나19는 당장 바꿀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우리가 할 수 있고, 변화할 수 있는 부분을 하며 내일을 기다리겠다”며 중단 없는 전진을 약속했다.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손혁 감독의 일편단심 '4번 박병호' 깨울까?

불박이 4번 중용 감독의 믿음 불구 득점권 타율 0.160·삼진1위 딜레마
박병호가 살아야 '공포타선' 완성

“앞에는 같고요. 5번은...”
프로야구팀 감독은 매일 경기를 앞두고 취재진과 만나 사전 인터뷰를 한다. 이 자리에서 감독은 해당 경기의 선발 라인업을 발표하고, 그 선수들을 왜 기용했는지 설명한다.

키움 히어로즈 손혁 감독(47)은 선수기용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덧붙이기로 유명하다. 본인의 판단, 코칭스태프의 보고, 선수의 컨디션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해 신중하게 선발 라인업을 결정한다.

그런데 꼼꼼한 손 감독이 사전 인터뷰 때마다 유독 자주 ‘생략’하고 넘어가는 대목이 있다. 바로 1번부터 4번까지의 타순이다. 그는 특별히 선수들의 컨디션에 이상이 없는 한 “앞에는 같다. 5번타자는...”이라며 설명을 시작한다. 이 생략에는 서건창~김하성~이정후~박병호의 국가대표 라인업이 포함돼 있다.

야수들의 체력적 측면을 고려할 경우 리드오프 포지션에는 가끔씩 변화를 가하기도 한다. 그러나 손 감독은 4번타자 자리에서만큼은 올 시즌 확고한 ‘믿음의 야구’를 보여주고 있다. 박병호(34)의 존재감 때문이다.

불박이 중심타자를 내세우는 손 감독의 철학은 확고하다. 그는 “우리 팀의 4번타자와 마무리투수는 한 시즌 내내 정해져



박병호

있다고 누차 강조한다. 박병호와 조상우의 보직만큼은 변함없이 밀고 가겠다는 확실한 의지의 표현이다. 그러나 손 감독의 믿음이 무색할 정도로 2020시즌 초반 박병호는 부진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1일 현재 올 시즌 24경기에서 타율 0.212, 5홈런, 12타점, 15득점에 그치고 있다. 지난해 홈런 왕치고는 초라한 성적임에 분명하다. 세부 지표는 더욱 처참하다. 득점권 타율은 고작 0.160이고, 삼진은 33개로 축스럽게도 이 부문 1위다. OPS(출루율+장타율)도 0.746에 불과해 ‘국가대표 4번타자’의 공포감을 상대에게 전하느라 애를 먹고 있다.

키움은 올 시즌 공격 측면에서 외국인타자의 덕을 전혀 보지 못했다. 여기에 박병호까지 긴 침묵에 빠져있자 타선의 짜임새가 확실히 매끄럽지 못한 모습이다. ‘강력한 우승 후보’라는 시즌 전 평가가 무색하게도 12승12패로 간신히 5할 승률만 맞추고 있는 이유다.

믿음의 야구는 감독에게 늘 ‘양날의 검’이다. 기다림 끝에 빛을 보면 ‘명장’ 타이틀이 붙지만, 결과가 좋지 못하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무능한 감독으로 낙인찍힌다. 2020시즌 4번타자를 박병호로 못 박은 손 감독은 과연 어떤 평가를 받게 될까. 모든 것은 반전이 절실한 박병호의 배트에 달려있다.

정은성 기자 award@donga.com